

## 제주도 탐라해상풍력 사업 확장 심의의결 “무효”

도의회 농수축위, 10일 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고태민 의원 “관련 조례에 사업 확대 명시 없어”  
도 “전기사업법 따라 변경 절차 등 자문 후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시 환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한 조례를 이태했기 때  
문에 ‘무효’라는 주장이 제주도의  
회에서 나왔다. 반면 제주도는 관  
계법인 전기사업법에 따라 변경 절  
차를 진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  
다는 입장이다.

10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  
의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  
월읍 갑)은 제주도가 최근 풍력발  
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탐  
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  
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문  
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일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심의위원회는 제주시 환경면  
두모·금동리 해역 소재 탐라해상풍  
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을 조  
건부로 통과시켰다.

탐라해상풍력 지구 지정 변경안  
은 현재의 해상풍력 발전용량 30MW  
(3MW×10기)를 100MW로 3배 이상  
확장하는 것으로, 72MW(8MW·9기)를  
추가·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예정  
자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  
사의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절차  
를 거치지 않고 확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탐라해상풍력발  
전은 제주도의회의 지구지정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발 이행 절차  
를 거친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태민 의원은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지구  
지정 변경 심의가 이뤄졌는데 제주  
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  
정 등에 관한 조례에는 변경에 대  
한 문구가 없다”면서 “조례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상위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이탈해 심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  
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기사업법  
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답변에 나선 김창세 제주도 혁신  
산업국장은 “조례의 경과규정을 보  
면 해당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  
의 발전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의한 풍력발전 지구로 지정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권한 이양 받은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  
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없이  
변경 절차를 심의 의결한 것은 유  
감이다. 조례에 사업내용 변경 허  
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조례를  
개정한 뒤 다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및 특별  
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대  
한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 전체토  
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국회 개  
헌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2분  
과) 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 위  
원인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  
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만개한 진달래꽃 10일 한라산 뒷세오름을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답게 만개한 진달래꽃을 구경하며 지친 심신을 달라고 있다. 진달래와 철쭉은 모두 진달래과에 속한다. 진달래는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데 반해, 철쭉은 꽃과 잎이 함께 난다. 이상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총력’

15일 국회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토론회 개최  
도, 결과 분석·워킹그룹 운영 통해 대응전략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제주도  
민행동본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2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및 특별  
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대  
한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 전체토  
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국회 개  
헌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2분  
과) 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 위  
원인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  
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

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패널토론은 개헌 관련  
시민단체, 기관 주요 인사·전문가  
들이 참여하며, 이후 플로어를 포  
함한 전체토론을 이어간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중  
합적으로 분석하고, 워킹그룹 운영  
을 통해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최종 도출하고, 대국  
민 공론화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회의 개헌 움  
직임에 따른 전국 학계, 개헌단체  
들과의 연대 추진과 함께 청년·대

학생 지방자치분권 홍보단 등을 통  
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  
를 적극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나는 제주TV’에서 생  
중계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를 위원장  
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  
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10명)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섬 지역의 사례 분  
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특별  
자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심층 분석하고, 고도  
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고대로기자

‘우후죽순’ 4·3 기념사업 내실화... 3면 / 한담산책로서 또 낙석사고... 4면

지역주민 자발 참여 아래  
탄소중립 선도 사업 추진  
대기전력 차단 등 생활 속 실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주민들  
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탄  
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를 구성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목표  
를 수립하고, 목표에 따른 온실가  
스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해 탄소중  
립 생활 실천을 확산시키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달 현재 제주도는 총 사업비 1  
억 5000만 원(국비 50% 포함)을 투  
입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온실  
가스 감축 프로그램과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2  
년차 7개 공동체와 1년차 3개 공동  
체가 참여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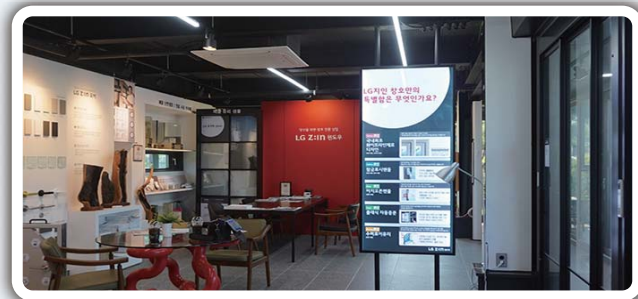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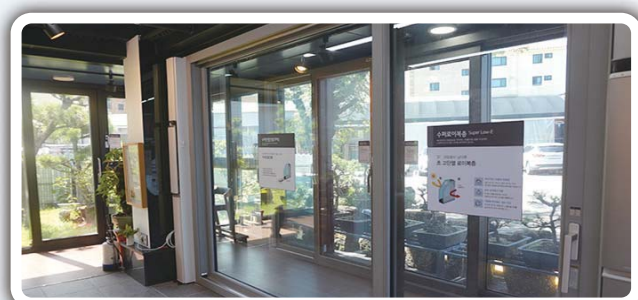
그동안 탄소중립 실천은 기관,  
기업, 환경단체 등에서 이끌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  
발적으로 공동체 조직을 구성해 일  
상생활에서부터 탄소중립을 실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참  
여공동체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  
회관계망(SNS) 게시,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교육 참여 등 탄소중립  
인식 개선 프로그램부터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과대포장 제품  
안사기까지 생활 실천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참여공동체의 활동은  
각종 단위부터 지역사회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  
실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참여공동체는 최대 3년까지 참여  
할 수 있으며, 3년차에는 발광 다이  
오드(LED)조명으로 교체, 절수 설  
비 설치하기 등 활동 시설을 효율  
적으로 개선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창호의 새로운 기준!

주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주도민의 깊은 사랑을 받아온  
저희 (주)한진시스템은 행복한 주거환경을 소중히 지켜가며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주도민의 기업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 제주 2015-07-05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주)한진시스템

제주시 아연로 175(오라이동)

TEL.711-5169

LX하우시스 제주대리점

· 시스템창호 · PVC창호 · A·L·유리

